

## 살펴 보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기

4월부터 보건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제 막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백신에 대한 후기를 찾으면서도 좋은 점 보다 부작용 등에 대한 증상이 먼저 보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는 중요한 일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 취약 계층도 보호하고 사회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나 역시 집단면역 확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집단면역을 위한 한걸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했다. 접종 전에 친절하게 예약된 안내문자를 보내준다. 관할 보건소의 백신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협회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백신은 전용 냉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으며 접종 시작과 동시에 모든 걸 전산에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까지 출력해서 준다.

접종을 하러 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막상 주사를 맞으려고 하니 살짝 걱정이 되긴 했다. 코로나 백신은 바늘의 통증, 약물이 들어가는 통증이 다른 주사에 비해 덜한 느낌이었다. 타이레놀을 먹는 시기는 접종 전, 접종 직후 먹는 사람도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주사를 맞고 관찰실에서 30분 정도 대기 후에 이상반응이 없으면 나올 수 있다. 최초 30분은 별 반응이 없었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살짝 주사부위에 통증이 왔지만 견딜만한 수준이었다.

집에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가는 건가 생각할 무렵, 접종 후 9시간 정도가 되자 열, 오한, 근육통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면, 같이 접종한 남자 동료직원의 경우 전혀 아무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새벽에는 열이 38.7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온수매트를 겨울철 설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맞추고 잠을 청해도 너무 춥고 온몸이 달달 떨려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 타이레놀을 복용했으며 식욕부진도 생겼다. 타이레놀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에는 견딜만 했으나 약효가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코로나19 백신 예약안내문자

